

+ 이장섭 · 방송과기술 기자



Field Report

미리 보는 제41회 한국전자전(KES 2010)



제41회 한국전자전이 10월 12일(화)부터 15일(금)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. 올해 41회째를 맞는 KES는 “IT’s my life!”라는 주제로 열리며,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알찬 무역거래와 풍성한 행사를 기획했다.

KES 2010은 모든 참가자들이 전자, IT 산업의 트렌드와 제품기술을 보고, 또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진정한 마켓플레이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우선, 전자, IT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 할 ‘Smart Korea’를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. 여기서는 IT 기술과 자동차, 조선, 섬유, 의료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다룰 예정이며,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구글, 트위터 등 유명기업을 초청해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 할 것이다. 그리고,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의 모임을 유치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선보이게 되는데, 앞으로 여러 사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.

또한, 한국 중국 일본의 전자제품 유통상들이 대거 참여하는 유통관이 개설되어 참가 업체들과 많은 무역 상담이 있을 것이며, 이외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과 세계 첨단 제품과 기술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개막식도 준비를 마쳤다.

IT's my life

한국전자전 KES 2010

10.12(화) ▶ 15(금)
KINTEX

